새로운 캐릭터 젠… 포의 시대 저무나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마이크 미첼·스테파니 스티네 감독 '쿵푸팬더 4'.

마이크 미첼·스테파니 스티네 감독 쿵푸팬더 4

지난 4월 4일 에버랜드 인기스타였던 '용인 푸씨' 푸바오가 한국을 떠나자 영화 '쿵푸팬더 4'가 찾아왔다. 푸바오의 영향력인지 몰라도 팬더에 대한 낯섦 없이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필자만의 자연스러움인지…. '쿵푸팬더 3' (2016)에 이어 8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 '쿵푸팬더 4'는 '쿵푸팬더 시리즈' 총 6편 중 네 번째 이야기다. 지난 세 편에 걸친 이야기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세 편의 이야기를 먼저 요약해보기로 한다.

평화의 계곡에서 오리 아버지 핑 밑에서 국수 파는 일을 돕는 뚱보 팬더 포. 이 소년 팬더는 쿵푸 마스터를 꿈꾼다. 쿵푸에 대한 꿈을 키우던 터라 포는 절대신공 비법이 적힌 용문서의 전수자를 정하는 '무적의 5인방'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 시합장에 갔다가 마을의 현자인 거북이 우그웨이 대사부에 의해 '용의 전사'로 점지된다. 무적의 5인방과 시푸 사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터인데, 용문서를 노리고 감옥에서 탈출한 타이렁이 마을을 습격해온다. 시푸 사부는 포에게 쿵푸 기술을 전수하고, 용의 문서 의미를 터득한 포는 진정한 용의 전사로서 악으로 가득 찬 타이렁을 무찌르고 마을을 지켜낸다.

시리즈 별 차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빌런들이다. 흑표범 타이렁 외에도 공작새 셴, 황소 카이가 있다. '쿵푸팬더 4'에는 보다 강력한 빌런으로서 이들 빌런들의 능력을 모두 빼앗으려는 카멜레온이 등장한다. 시리즈에 빠지지 않는 조역 '무적의 5인방' 구성이 재미있다. 쿵푸의 주요 권법은 호권, 학권, 당랑권, 사권, 원숭이권, 용권 등이다. 이 권법들은 동물 및 곤충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그 움직임을 습득함으로써 권법이 되어온 것이다. '쿵푸팬더' 시리즈는 동물과 곤충을 직접 등장하게 하여 각 권법을 구현한다. 호랑이 타이그리스, 학 크레인, 사마귀 맨티스, 뱀 바이퍼, 원숭이 몽키가 직접 자신들의 권법을 펼치도록 하는 작가의 신박함이다. 애니메이션 영화만이 보여주는 재미이기도 하다.

전편에서 보여준 오리 아버지와 팬더 아들은 누가 봐도 친부·친자 관계가 아닌데, 이를 소재로 삼은 엉뚱함도 웃게 만든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친부 팬더 리샨을 만나기 전의 갈등 및 만남에서 빚어지는 생부와 양부의 입장 등을 뻔하지만 애니메이션이라 뻔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점도 새로웠다. '쿵푸팬더 4'에서는 친부와 양부가 합심하여 아들을 돕는데, 애니메이션이 주는 교훈이기를 바라게 된다. 쿵푸팬더 시리즈에는 교훈이 넘쳐난다. '지나간 것은 히스토리(history), 앞으로의 미래는 미스터리(mystery), 현재는 선물이라 프레젠트(present)'라며 현재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가능성 없어 보이는 주인공이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장점은 있으며, 자신에게 내재된 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장점에 따라 다르게 교육해야 한다'는 교훈도 애니메이션의 보는 재미 속에 끼워져 있다.

'쿵푸팬더' 시리즈는 쿵푸의 철학, '믿음' '내면의 평화' '기'와 같은 키워드로써 관객을 일깨운다. 이번 '쿵푸팬더 4'의 키워드는 '변화'다. 변화가 무기인 카멜레온처럼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악의 그늘에서 성장한 젠이 악을 버리는 변화도 보여준다.

한편 지혜의 지팡이를 물려받은 포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는 동시에 후계자를 지목해야 할 만큼 변화를 기해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도 여전히 용의 전사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쿵푸팬더 6'까지 시리즈를 이어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활용된 것 같다. 무적의 5인방보다는 새로운 캐릭터인 여우 젠의 비중이 커졌다. 포가 젠에게 복숭아 씨앗을 건네주며, "씨앗이 되어줘."라는 말은 포의 시대를 젠의 시대로 이양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어느덧 큰 나무가 된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내면의 평화를 위해 수련을 하는 포. 이는 '쿵푸팬더 5'에 대한 준비인 듯 보였다. (4월 10일 개봉)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기고

김남주 서울 SH공사 전 노원센터장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행복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딸아이가 있다. 딸아이에게는 딸이 두 명인데 12살과 8살 외손녀다. 그런데 지난 몇 달 전 카톡 영상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8살 외손녀가 나에게 특별히 부탁이 있다는 것이었다. 궁금해서 뭔데 그러냐고 되물었더니 옛날 시골 갔을 때 감자를 캤던 것처럼 이번에 한국에 나가면 또 감자를 캘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딸아이의 외가가 김제이다 보니 한국을 떠나기 전 딸아이 가족과 우리 부부가 휴가차 김제를 방문했는데 그 때 마침 6월 말경이라 감자를 캤던 기억이 나서 너무 재미있었다고 다시 꼭 감자 캐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외손녀가 하는 부탁인데 안 들어줄 수는 없어서 부랴부랴 김제 장인에게 전화해서 이러이러하니 텃밭 감자심을 면적을 좀 남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자밭 남겨둘 터이니 우리가 내려와서 밭 일궈서 감자를 심으라는 것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부터 감자에 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물론 시골 출신이라 감자심기에 대한 기본 상식은 있지만 그래도 나 혼자 작은 농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어 공부하기로 했다. 씨감자 준비, 씨감자 씨눈 자르기, 씨감자 소독하기, 밭이랑 만들기, 감자심기 및 방법, 밭에 퇴비 시비 후 관리하기, 검정비닐 멀칭하기 등등 해야 하는 게 많았다. 우산 날짜를 외손녀들이 귀국하는 날짜가 6월30일이니까 조금 늦게 수확하는 것으로 역계산 하여 본래는 3월 중순쯤 파종을 하는데 좀 늦게 3월 말일경 감자를 심는 것으로 날짜를 확정하고 장인어른께 3월 중순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때 퇴비 시비 등 준비를 하고 2주 후 파종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월 중순경 처가를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시기 넘어가면 감자는 안 된다는 장인어른의 완고하신 말씀과 함께 내일 당장 감자를 심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늦은 잠을 설치고 부랴부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밭을 일구고 비닐멀칭을 해놓고 난 후 아침을 먹고는 씨감자를 쪼개서 파종을 하였다. 옛날 어릴 적 새벽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새벽에 아버지 따라가서 밭일을 해본 적 있지만 나 스스로 새벽부터 밭을 일구고 퇴비를 뿌려 감자 이랑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감자밭 이랑을 만드는데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안경사이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은 왜 그리도 닦기조차도 귀찮은지. 하지만 워낙 내 성격이 깔끔하다고 자칭하는지라 감자밭 이랑을 만드는 것도 이웃집 이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었다. 장모님이 나와보시고는 무척 놀라시며 최고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외손녀들을 위한 감자 파종은 끝이 났고 이제 파종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다. 감자는 파종 후 약 한 달이 지나야 싹이 난다고 알고 있지만 궁금한 나는 처남을 동원하여 감자 싹이 났는지 벌써 확인해 봤지만 역시나 한 달이 안 되고 2주밖에 안 되어서 싹은커녕 움도 트여있지 않는다고 전해왔다. 가까우면 매일 가서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가끔 주며 씨감자들과 대화도 할 텐데….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생장한다고 하지 않던가? 심는 자의 행복과 기대감을 숨길 수 없다. 언제쯤 싹이 틀는지, 언제쯤 순이 올라올는지, 또 꽃과 수확은 언제하게 될는지, 무척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농부들이 피곤함도 잊고 매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심은 작물의 수확에 대한 기대와 꿈, 그리고 매일 그 작물의 생장을 보고 느끼는 행복….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장과 열매 그리고 또, 생장한 또 다른 그들의 반복되는 씨 뿌림이 아닐까?

뉴질랜드의 외손녀들은 오는 6월 30일에 귀국한다. 그리고 약 보름 정도 우리 집에 있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외손녀들을 위해 감자를 심고 매일 기도하며 그 녀석들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있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함께하는 보름 동안에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생각하는 중이다. 손녀들의 귀국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녀석들을 기다리며 감자를 심는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행복임을 고백한다. 6.30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발언대

군 전역후 시작되는 제2의 내 인생

오창원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멘토

군 전역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제2의 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을 선택하기 보다는 조급한 마음을 갖고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럴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1~3년 이내 퇴직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수직관계로 이루어진 군 조직문화에 이미 적응됐다보니 사회생활을 내딛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사회생활 적응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업과 사회생활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모두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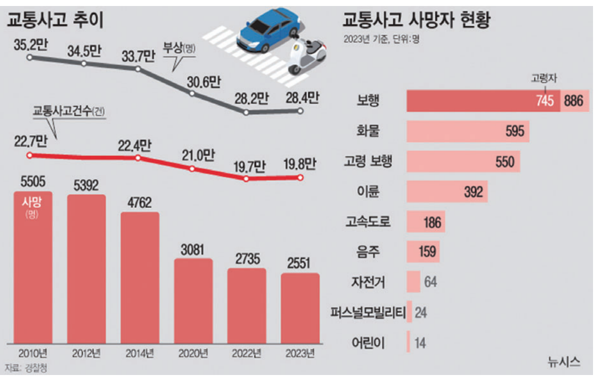
첫째, 갈등을 극복해야 더 나은 인간관계가 유지된다. 중장기 복무 후 제대한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라고 많이 말 한다. 일과 인간관계는 늘 변화하고 있고, 이때 필요한 것이 유연성이다, 자신의 의견과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간과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꾸민 모습만 보이지말고 나와 맞는 상대가 있고, 맞지 않는 상대가 있을 뿐이다. 다름을 인정하면 갈등할 일도 다툴 일도 사라지게 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표현하면서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를 유지해야된다.

둘째는 노력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군 복무시절 지휘관에는 신뢰를 동료간부들과 병사들에게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군 복무를 하였다. 각종 훈련과 부대관리를 통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과거의 경험과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JUST DO IT"이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다. 복권을 사지도 않고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는 기대를 버리고 내가 A회사에 입사하고 싶은면 반드시 그 A회사에 방문하여 사전조사 및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입사에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도록 기본적인 요건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즉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반드시 도움을 받도록 하고 방법을 찾았다면 열정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전역을 준비하고 있고, 제대군인이 되어 있는 선후배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길 바란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